

▶ 익산예술의전당 '메탈리스트, 익산 경주 교류전'

금속 가공으로 새로운 예술품 만들어내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시민에게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메탈리스트, 익산·경주 교류전'을 개최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교류전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17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기획전시 선정사업으로, 자매결연 도시 경주(재)경주문화재단)와의 교류를 통해 그 깊이를 더했다.

2,000㎡ 규모의 야외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는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첫 야외 전시다. 짧은 조각가 6인 김성수·오동훈·최정우·홍경태·정의지·문민은 스테인레스 철, 알루미늄 등 금속을 소재로 완성한 16여점의 조각작품을 선보인다.

어린 시절의 감수성을 현실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지속하는 김성수 작가는 '놀이공원' 속 놀이기구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유도한다.

김 작가는 놀이기구라는 구체적인 형상에 시간성과 공간성을 담아 현실과 비현실, 상상의 세계로 입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여러 가지 기술적 방식에 의해 조각되고 변형된 작품은 서로 다른 연결고리로서 기능을 겸하는 훌륭한 장치가 된다.

홍경태 작가는 무의식 속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구조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소통에 대한 다양한 감각을 시각화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철, 우레탄 등을 조율하고 변형하는 작업을 연속한다. '몽-하늘에 살다'는 너트(nut)라는 오브제를 녹여 입체화한 작품으로 소통과 교류



정의지 'Re-gensis-Buffalo'

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풀어낸다.

문민 작가는 목표를 잃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현대사회 인간의 문제에 대해 사유한다. 작가는 표현 기법을 세분화하여 정치인·회사원·복학생 등 특정 인간을 형상화한다.

'버블맨 시리즈'로 유명한 오동훈 작가는 어린아이들의 비누거품 놀이의 무한한 확장성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선보인다. 오 작가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구를 자르고 붙여서 원형을 만들고, 크고 작은 원형들을 덧붙이고 확장하면서 인체 혹은 동물 등의 다양한 동작을 가시화한다.

정의지 작가는 버려진 일상의 오브제를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금속 소재로 완성한 16여점 조각작품 선배 전시는 내달 31일까지

풀어들이고 가공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든다.

작가는 버려진 양은냄비를 수집하고, 수없이 두드려 조각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는 버려진 오브제의 과거와 현



김성수 '시간여행자'

재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와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최정우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집중한다.

작업의 범위는 개인에서 사회로 점차 확장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주변의 경험과 사물에서 숨은 의미를 찾고 그 이미지를 다시 형상화하는 작업을 지속한다.

전당 관계자는 "전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술관의 범주를 확장하는 자리다. 대형조각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공공미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여행' 영상 공모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를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객이 주체가 되어 도내 곳곳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함은 물론 홍보하고자 기획됐다.

본 공모전은 전북도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맛집투어' '짬뽕과 가고 싶은 곳'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등 자유주제로 하여 스마트폰 영상이나 동영상 편집 어플로 편집한 영상을 응모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 운영사업 > 문화관광팀 >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 > 지원하기)에서 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개인 및 팀별로 지원 가능하며, 지원 전 반드시 SNS(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에 업로드 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작 총 15편을 선정하여 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정읍시립국악단, 8일 정읍사공원 야외무대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공연이 마련돼 있다. 정읍시립국악단이 7월 8일 저녁 7시30분 정읍사공원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국악단은 실내악 연주인 '산채스의 아이들'과 국악가요를 들려주고, 참고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가수 김일중씨가 초대가수로 나와 대표 히트곡인 '비위섬'과 '직녀에게'를 선사한다.

다양한 초청공연도 펼쳐진다. 김하경 양이 '심청가' 중 '젓동냥 대목'을 선보이고, 김성민군과 방서희 양이 '사이즘'과 '트루트' 공연을 펼친다.

더불어 정읍시립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영화 미션(The Mission)의 OST(Original Soundtrack)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와 가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연주한다.

공연에 앞서 저녁 6시 30분부터는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울메미보부상단이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등의 물품도 판매한다.

이번 공연은 정읍시립국악단의 매월 보름(음력 15일) 상설 공연인 '달하 노파곰 도다샤' 일환이다. 시는 정읍의 대표적 인 문화관광 자원인 백제가요 '정읍사'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된 공연은 10월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상설공연을 통해 정읍사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백제가요 정읍사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시민들이 즐겁고 쾌적하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여름방학, 무형유산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원정대' 운영 이수자가 강사로 나서 실습·체험으로 꾸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무형유산 여름방학 캠프 '무형유산원정대, 여름 이야기'를 운영한다.

캠프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양질의 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재능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생생한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첫날인 25일에는 진주 검무·강령탈춤·인실필봉농악 등을 익히는 무형유산 전통예능 체험을 비롯해 단체를 이뤄 과제를 수행하는 나는야 예비무형유산 전승자, 비빔밥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이어 26일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한옥마을 탐방과 전주전 자연유산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무형유산 여름방학 캠프 '무형유산원정대, 여름 이야기'를 운영한다.

체험하는 '생태, 한옥마을 투어', 불화장 기술로 나만의 친환경 가방을 제작하는 무형유산 전통기술체험, 창극 '놀보는 오

장칠보'를 관람하는 무형유산공연관람, 무형유산으로 손수제작물(UCC)을 만드는 무형유산 UCC 만들기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무형유산 퍼즐을 맞춰보는 무형유산을 잡아라, 특별 과제 수행 실습 심화 지도와 그에 따른 결과 발표 및 수료식이 이어진다.

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기능 종목을 배울 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팀을 꾸려 예술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무형유산의 이해 폭을 넓히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숨겨진 역량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신청은 3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가능하며,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도 가득합니다.

방화동계곡

송아체험장

외동자연휴양림 물놀이장

NAVER 장수물 검색 장수군